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은주기도문 강해 네 번째 주로서

마태복음 6 :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의 구절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케 하기 위해 살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 가야 하는 가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의 삶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합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거룩은 이 세 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웬지 거룩한 자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Identity 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  
거룩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 : 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거룩으로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케 된 자들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예는 육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룩으로는 결코 거룩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중생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 : 30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 의 거룩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인한 거룩!

이것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거룩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케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두 가지 방법으로 거룩케 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케 됩니다.**

**두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케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케 된다는 것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고, 자연 만물은 그 피조물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케 되는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연 만물은 다 그 피조물이다.

창조주는 창조주의 위치에, 피조물은 피조물의 위치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이름은 거룩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 얼마나 창조주와 동일한 위치에 있고자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는 건너지 못하는 강이 있습니다. 피조물은 그 차이를 인정하고,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이 건너지 못하는 강, 하나님은 도달할 수 없는곳에 계심을 나타내는 성경적 용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케 되는것입니다.

이 말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 절하지도 말라는 명령과 직접으로 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우상을 통하여는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도 거룩케 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요사이 평상시 신에 대해 관심이 만았던 대학 교수들이 좌담회를 한 내용을 인터넷 중앙일보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의 목적은 신을 아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학과 신은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자기의 의견들을 말했읍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4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들이 찾는 신은 세상 신인 범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유 가운데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이 범신입니다. 그래서 자연안에 내재하는 신입니다. 이 범신으로서의 세상 신은 창조주로서 초월자인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창조주를 알수 없게 만듭니다.

초월자 창조주 하나님을 범신으로 대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초월자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에베소서 4 : 6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6 one God and Father of all who is over all and through all and in all.**

**(NASB95)**

만유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시지만 만유 위에 계십니다.

만유에 내재하시며 만유 위에 초월하여 계십니다.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적 신관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바라 볼 때 하나님은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즉

신명기 6 :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만유 안에 내재하시고 만유 위에 초월하신 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케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 법칙은 객관성과 반복성에 기초합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내일도 똑같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할 때, 그리고 그것이 증명 가능해야 하나의 법칙으로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법칙으로 과학에서 받아 들여 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주 안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에 의하면 이 우연은 법칙으로 받아 들여 질 수 없습니다.

과학적 법칙으로 받아 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우주 안에 우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이 우연도 발생하게 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유 위에 초월하여 계시며 만유 안에 내재하여 계신 하나님은 이 우연도 발생하게 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객관성과 반복성에 기초하는 과학적 법칙이, 객관성과 반복성을 초월하여 있는 우연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과학은 신의 존재를 증거할 수는 있어도, 신을 알게는 해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이성도 초월자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는 할 수 있어도 초월자 하나님을 알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월자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초월자 하나님의 이름은 믿음으로만 영화롭게 됩니다. 초월자 하나님의 이름은 믿음으로만 거룩케 됩니다.

범신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지 않습니다.

초월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 들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창조주의 이름으로 **엘로힘**과 구속주로서 **여호와**입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에 대해서는 창세기 1:1 을 보십시오.

창세기 1 :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sup>1</sup>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 나오는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그 다음에 창 2 장 4 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2 : 4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4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the heavens and of the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in the day that the LORD God made the earth and the heavens,**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Lord God 은 YHWH Eloheem 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YHWH 를 영어는 Lord 로 번역했고, 우리말은 여호와라고 번역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 : 15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창세기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온 후 2400 년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 나서서 자신이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는 500 여년 전부터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의 언약적 명칭**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주로서의 명칭이 여호와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시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이십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보다 구속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묵상할 때 제 가슴이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도 창대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구속주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 창대한 것처럼 실감있게 부딪혀 옵니다.

창조이래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다 불러 이르키시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성도들이 거할 신천신지를 창조하실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속주하나님으로 인정될 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케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 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요즈음 불신자들의 사회에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도 들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선교의 대상으로 삼느냐?

왜 개종을 최상의 목표로 삼아 선교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종교인들에 대한 선교를 불쾌히 여깁니다. 아프리카에서의 피랍 사태는 이런 반대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였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부추기는 종교적 결정이 있는데 제 1960년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결정입니다.

여기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교도 들에게도 구원이 있습니까?

만약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은 범신론적 구원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은 범신의 반열에 들어 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은 아니고, 범신 중에 하나인 잡신이 되는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범신론적 구원과 다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로 편입되는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타종교의 구원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타종교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편입되는 구원에 들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타종교에 선교합니다.

배척하는 마음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범신으로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티칸 공회의결정은 구속주 하나님의 이름을 범신의 차원으로 끌어 내린 망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구속주로 모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받게 됩니다.

2. 다음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케 된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중생한 후에 어찌하던지 자신의 의지의 노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 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때론 성공도 하고 좌절도 하면서 일평생을 살아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수준에서 신앙 생활을 하다가 천국으로 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수준이 이것입니까?

사실 이런 수준의 거룩은 타종교의 거룩한 자들도 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거룩을 이런 수준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신앙 생활에서 거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히 알아야 할 것은 영과 육의 차이입니다.

먼저 육은, 타락한 아담이 그 후손에게 물려준 것은 모두 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자연적 상태에서는 육으로 태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은 모두 새로 태어 나는 아이부터 시작하여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 까지 모두 있는 그 상태에서는 육입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육에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성경에서는 죽은 행실, **dead work**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 :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Hebrews 9:14

How much more shall the blood of Christ, who through the eternal Spirit offered himself without spot to God, purge your conscience from **dead works** to serve the living God?

히브리서 6 : 1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히브리서 6 : 2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성경에서는 **죽은 행실, dead work** 이기 때문에, 육의 선한  
행실로는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선을 행하여도 하나님께 열납되지 않습니다. 죽은 행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영입니다.

요한복음 4 :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영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예인  
자연인으로 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육이고, 하나님으로 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영이다.<sup>1</sup>

---

<sup>1</sup>. If God be a spirit, it follows of necessity that He is a person, a self-conscious, intelligent, voluntary agent. As all this is involved in our consciousness of ourselves as spirit, it must all be true of God, or God is of a lower order of being than man.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 들여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육의 것으로는 하나님께 열납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하나님께 열납됩니다.

그런데 중생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지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다간 다시 일어 나서 해보지만 또다시 좌절을 경험합니다. 일평생 이 일을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에선 육에 속한 모든 것,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중생한 후에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 하지 않고, 예사람적인 것, 육적인 것을 주의 제단에 올려놓고 불이 내려 오기를 기다립니다. 제물은 죽어 깨어지지 않으면 열납되지 않습니다.

제물이 죽어 깨어지지 않으면 그 대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죽고 난 후에 깨뜨려져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에 의해, 고기는 고기대로, 피는 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그 목적에 따라 거룩하게 쓰여집니다.

민수기 18 : 17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민수기 18 : 18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혼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

Finally, it follows from God's being a spirit, that He is a moral as well as an intelligent Being. It is involved in the very nature of rational voluntary being, that it should be conformed to the rule of right, which in the case of God is his own infinite reason.

여러 분과 나는 제단에 올려진 제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반만 죽은 제물, 산체로 들여지는 제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중생하고 나서 이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끝없는 좌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하실 때 제물을 사이에 두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 : 9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년 된  
암염소와 삼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기 전에 제물을 준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제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물을 준비하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 : 10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개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암염소와 수양은 죽여 쪼개서 드렸지만, 깨뜨려 드렸지만, 집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않았읍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는가 보십시오. 쪼개지지 않는 비둘기에는 솔개가 달려드는 것입니다. 사체인 줄 알고 달려 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 : 11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그렇지만 쪼개여 드린 제물에는 무슨 일이 생겼는가를 보십시오.

창세기 15 : 17 해가 저서 어둠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개어, 깨뜨려드린 제물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내려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 : 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죽지 않은 제물이나 쪼개지지 않은 제물에는 언약 대신 솔개가 내려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왜 잠잠하기 않고, 요동합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왜 풍랑이 일어 납니까?

죽지 않은 제물을 제단에 올려 놓았거나, 죽어 쪼개지지 않은 채로 제단에 올려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런 제물은 사체인 줄 알고 솔개가 자꾸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제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케 하는 온전한 제물이 됩니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첫사람 아담의 것이 아닌 둘째 아담의 것으로,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으로 드러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케 됩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새사람으로 드러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을 통하여 거룩케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런 사람을 통하여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하신 분은 꼭 공부를 하신

주기도문강해 web-page 로 가셔서

공부를 하신 타이틀의

Like Button 을 눌러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 Like button 을 누르지 않으셨으면 다음 공부로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Eg. 만약 주기도문 강해 서론을 공부하셨으면

인터넷 브라우저의 좌측 상단으로 가셔서



를 누르시면 주기도문 강해 web-page 로 돌아 갑니다.

거기에서 주기도문 강해 서론을 설명한 내용 하단에

Like Button 이 있습니다.

모든 타이틀마다 다 Like Button 이 있습니다.